

RAINMAKER

Vol
67

HWASEUNG Life Magazine

2022 SUMMER



rainmaker?

가뭄에 비를 만들어내는 존재이자
기업에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인물,
비현실적 상황을 비상하는 현실로 만드는 레인메이커?

rainmaker!

링 위에서 일격을 준비하는 복서처럼
조직을 위하여 최일선에 선 존재처럼
나 너 우리 모두의 실체는 화승인, 정체는 레인메이커!



CONTENTS

2022 SUMMER Vol.67

총괄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팀장

화승그룹 홍보팀 심일욱 선임

화승R&A 이지학(기획팀 선임)

화승소재 임상호(영업관리팀 팀장)

화승T&C 박건국(관리팀 사원)

화승인더스트리 정성욱(IR/경영관리팀 매니저)

화승케미칼 한동민(경영지원팀 매니저)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차장

미국 화승코퍼레이션 ARHQ 최일영 책임

중국 화승코퍼레이션 CRHQ 문지훈 선임

2022년 6월 17일 발행(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연제, 바00003

신고일자 2016년 8월 30일

발행인 현지호 편집인 김정식

기획·진행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심일욱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02-515-3681)

표지 일러스트 윤진경

인쇄 우일인쇄

펴낸 곳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메일 illwook.sim@hscorp.com

04 Let's 70

화승이 만들어진 시간이 화승 70년을 굳게 약속합니다

06 Memory Letter

이어령 선생께 배풀어주신

현 회장님의 정성을 하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SPACE

14 Image Making Film

화승, 성장을 부르는 레인메이커^{Rainmaker}

20 Maker 01

오래된 진땀이 레인메이커, 화승을 추앙하라

24 Maker 02

우리는 당대의 진정한 레인메이커

28 Maker 03

화승의 미래, 통합기술센터가 책임진다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

34 HS Maker

단비를 부르는, 화승 레인메이커들과 만나다

14



SHUTTLE

40 화승인터뷰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결합, 화승으로부터

-화승R&A 김형진 대표이사

44 화승 핫라인

당신의 취향에 맞는 고기를 찾아드립니다

-커스텀잇^{ICUSTOM EAT}

52 타이거 마스크

복싱하는 화승인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더 크고 더 세계 어퍼컷!

56 화승 희망회로

희망이 달립니다, 행복이 함께합니다

40



STATION

64 和友동산

종택, 선조의 얼과 후손의 삶을 품다

-경남 거창 충신당 동계정은 고택

70 신나는 화승생활

‘화승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어메이징 패밀리’로 함께하다

74 화승문고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레인메이커

78 네트워크 뉴스

64



화승이 만들어온 시간이
화승 70년을 굳게 약속합니다



1982. 11. 20

화승
70년
을
굳게
약속
합니다

본 이미지는 화승그룹에서 근무했던 백호기 사우가 기증한 것으로,
1982년 당시 동양고무 임직원과 나이키 임직원의 친선 농구 경기 기념으로 제작된 타월입니다.

이어령 선생께 베풀어주신 현 회장님의 정성을 하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이셨던 이어령 선생을 떠나보내고,
남은 이들의 헤아릴 길 없는 심정을 주고받은 편지글과 함께해본다.
선생의 부인이신 영인문학관 강인숙 관장과 선생의 제자셨던
현승훈 화승그룹 회장의 추모 서간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동행해보자.

존경하는 현승훈 회장님께

이어령 선생이 떠난 지도 40일이 넘었습니다. 사람을 태워 재로 만드는 엄청난 일에 압도 당하여 낮 이 나가 있는 동안에도 밖에는 봄이 와 있더군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온천지가 꽃을 피우느라고 수선을 피우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방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오랜 환자는 환절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동이 되는 일이, 많이 아픈 환자들에게는 추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딸도 3월에 갔거든요.

오늘은 그의 마지막 날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던 회장님께 그의 힘들던 시간들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7년간 암을 앓아왔지만, 그가 간병인을 둘만큼 중태에 빠진 것은 5주 정도였습니다. 1월 중순경, 그이는 하루에 수프 반 공기 정도 밖에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주사도 안맞았는데 식사량이 줄어드니 몸이 허해져 기억력이 갑자기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섬망 상태가 왔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자꾸 그게 이미 했던 일 같이 생각되는 증상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자기가 정신을 놓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몸 중에서 두뇌를 가장 아꼈던 그는 두뇌가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아까운 두뇌가 망가지는 걸 보는 건 저에게도 너무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선생 집안에는 망녕이 나서 돌아가신 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은 백한 살에 돌아가셨는데도 마지막까지 의식이 뚜렷하셨거든요. 형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 일을 깨우쳐 드렸더니 이 선생이 크게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수면제와 진정제를 놓고 간 후 며칠이 지나자 그 증세는 곧 사라져서 다행히도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이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 장애는 걷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위커를 잡고라도 혼자 걸으려고 있는 힘을 다 쥐여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직립인간이고 싶었던 겁니다. “걷는 날까지만 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거든요.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자 우리는 또 마주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무리하게 화장실에 जाए가다 몸이 무너져내려서 겨우 침상에 눕힌 후, 그는

할 수 없이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기간이 2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이 부어서 물을 못 삼키자 그가 주사 맞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사를 맞아보니 이를 연명하는 것뿐인데, 10시간 넘게 주사기를 매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주사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가셨습니다.

병으로 인한 진통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비병을 지르면서 아픈 것은 두어 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르핀이 든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데 목이 부어 삼키지 못하는 상태여서, 플라스틱 병에 액체 진통제를 넣고 아기들에게 하듯이 살금살금 눌러서 겨우 한 번은 진정시켰는데, 다음 날은 목이 굳어서 그것도 안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붙이는 진통제를 구해 왔습니다. 열 시간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열 시간이 지나 약효가 나타난 후에 임종이 시작되어 고통을 모르는 상태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두세 기간 정도 숨이 가빠 하시면서 눈을 감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촛불이 꺼지듯이 조용히 임종하신 겁니다. 배에 복수도 차기 시작했고, 욕창도 나려고 하고 있던 시기여서, 예민한 감성으로 그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면제해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간병인 둘이 다 쉬어서, 가족들이 2인조를 짜서 세 시간씩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와서 피붙이들만 있었거든요. 원하던 대로 가족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돌아가셨으니 이어령 선생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의 긴 병과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장님이 보내주신 토종닭을 못 드시고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장님이 한 순같이 라도 먹이시려고 수저를 들고 옆에 계셨던 셈이죠. 그 긴 세월 보살펴주신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못 먹겠어서 음식만 보면 화를 내던 마지막 시기에도 현 회장님이 보낸 거라고 하면 몇 순같이 라도 삼키려고 애쓰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음식이 아니라 정성을 삼킨 거지요.

그 정성이 죽음 앞에서 외로웠던 그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육친도 하기 어려운 그 큰 일을 회장님이 몇 년 동안 해오신 겁니다. 매번 메뉴를 바꿔가면서 보내주시던 그 정성을 하늘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회장님은 참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일은, 한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귀중한 일”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어서 음식을 보내주시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어 주십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픈 사람도 아니고, 회장님의 선생도 아닙니다. 송구스러워서 더는 못 받겠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면 아이들이 혼자 살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요즘은 열심히 섭생을 하고 있어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워낙 소식인데다가 혼자 살고 있으니 늘 음식이 남기도 합니다. 아이를 앞세운 후부터는 몸에 이롭다는 음식을 찾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며 살아왔는데도 십 년이나 아이 보다 많이 살았습니다. 선생님도 잘 보내드렸으니 꼭 오래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회장님이 지난 번에 제게 보내주신 약은 거기 스며 있는 정성에 감동되어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귀한 약을 보내셨네요. 두근두근 열심히 먹고 힘을 추슬러서 일어나 이 선생 뒤통수까지를 성심껏 하다가 가겠습니다. 정말 더는 아무것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



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를 잘 압니다. 매년 회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져서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윗동네에 100평 정도 되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말이 지하실이지 사실은 지상에 있는 건물의 아래층입니다. 거기에 이어령 선생의 자료실인 ‘이어령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상에 작은 아들집이 있으니 그애가 앞으로 운영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던 집도 제가 죽으면 재단에 기증해서 이 선생 서재는 일반에게 공개하고 주택은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양에 부모님 산소가 있는데 2천 평 정도는 되는 곳이기에 이어령 기념각을 조그맣게 세우고, 동산은 꽃밭을 만들어서, 구석구석에 이어령 어록비를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고향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설계도라도 만들어 놓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큰아들이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출판 관계 같은 것을 관장하게 하고, 해마다 기일에 영인문학관에서 이어령 전시회도 할 예정입니다.

묘지는 천안 공원묘지에 썼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나란히 산 묘지가 있는데, 당신이 거기 가고 싶어 해서 그리 모셨습니다. 비석 하나 세울 곳이 없는 공원묘지입니다만 관리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사모님께 따로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회장님택 화승원이 요즘 아름답겠군요. 저는 화승원을 생각하면 산속 구석구석까지 정갈하게 손을 보신 회장님의 인품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잘 가꾸어진 정결한 산이 있다니 신이 칭찬할 일입니다. 그 한복판에 이 선생 시비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며, 저희들의 회혼식까지 챙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택내 모두 건강하시기를 빌며, 사모님에게도 안부 전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방학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 3월 10일

강인숙 올림



강인숙 사모님께

사모님, 사모님의 편지를 한 자 한 자 읽으면서 그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학창 시절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날, 서울에 가서 선생님을 뵈었던 날, 화승원 화보집에 글을 써주셔서 책이 나온 날, 사월 초파일에 부산 화승원에 방문하셔서 회혼식을 함께 하셨던 날, 선생님과 사모님께서 보내주셨던 편지 하나하나, 책 한 권 한 권, 그리고 통화로 나눴던 그 고마운 말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젠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선생님은 영원히 저에게, 저희 가족에게 큰 스승이고 등불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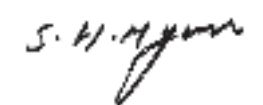
저의 진심에 대한 사모님의 과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며 몇 번이나 전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을 꼭꼭 눌러 담아 시간의 궤적을 쌓아 올려주신 글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운 마음입니다. 선생님께서 한 순간이라도 더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과 사모님께서 방문해 주셨던 화승원의 길을 따라 걸으며 이 길을 다시 함께 걸으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통하고 애통합니다.

사모님의 건강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편지에서 써주신 내용처럼 차츰 기운을 차려 가신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더 기운과 건강 차리셔서 오래오래 대한민국 문학의 불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아카이브 사업도 뜻깊게 자녀분들과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보내주시는 선생님의 신간은 늘 고맙게 받고, 읽고 있습니다. 책 마다 선생님의 흔적이 가득해 더욱 그리워집니다.

여름방학, 화승원 방문 연락을 주신다면 선생님의 그리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걸었던 그 길을 사모님과 자녀분들과 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뵈을 그날까지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한가득 담아주신 서신에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2022년 4월 14일

현승훈 올림



글로벌 시장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완성차
생산 차질이라는,
위기에 맞서 화승 또한
범 계열사 차원의
통합기술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단비 같은 존재,
화승 레인메이커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화승, 성장을 부르는

레인메이커 Rainmaker

아메리카 인디언 시대에는
단비를 부르는 능력자를,
요즘엔 조직이나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실력자를
‘레인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장은
고비라 외치고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의 점철로,
분리할 수 없는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화승 업무가 나의 일이고, 화승 일이 우리 업무이듯
개인과 조직, 회사가 굳건히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굶주린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농사를 적극 권장해
재위기간 중 가장 많은 기우제를 지냈던
세종대왕이 조선의 레인메이커였다면,
지금의 척박한 상황을 촉촉한 성장의 단비로 채워나갈
화승, 화승인이 지금, 그리고 미래의 레인메이커입니다.

오래된 진뻐이 레인메이커, 화승을 추앙하라

원래 '기우사(祈雨士)'를 지칭하는 레인메이커는 '비를 부르는 사람'이다. 나아가 현대 경영학에서는 가뭄에 '단비'를 부르듯이, 자신의 일을 통해 '단비'와 같은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을 '레인메이커'라고 부르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더욱 '단비'와 같은 성과가 간절한 요즘, 우리 결의 '진뻐이' 메이커인 화승그룹,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진정 가슴 뛰는 캐릭터이자 불굴의 도전 DNA인 '레인메이커'에 대해 생각해본다.

진뻐이: '진짜배기', '유명메이커'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

타는 목마름 속 끝내 '단비' 같은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 레인메이커

미국 인디언들의 여러 전설에는 '레인메이커(Rainmaker)'가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 레인메이커는 미국 인디언들이 비를 부르는 '주술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인디언들은 레인메이커를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단비를 내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여겼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디언들은 가뭄에 시달리다 굶어 죽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 그런 고난을 뚫고자 분연히 일어난 레인메이커는 들판에 홀로 나가 열정적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오로지 비를 기원했다. 그리고 그렇게 레인메이커가 기우제를 지내면 어김없이 비가 왔다고 한다. 그 비결은 뭘까. 그 이유는 레인메이커는 타는 듯한 가뭄을 식힐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반복한다.' 이 단순하면서도 우직한 물입과 실천이 레인메이커가 성공적으로 비를 부르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 레인메이커의 전략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몸담은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레인메이커의 성공 공식을 따라가보자. 간단하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패하는 것'이다. 기우사(祈雨士)에서 유래한 레인메이커란 말은 이제 경영·마케팅·세일즈 등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 됐다. 자신이 몸담은 회사나 조직에 '기회를 가져다주는 사람', '고객을 끌어오는 사람',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고객의 마음에 차이를 포지셔닝하는 사람, 레인메이커

현대의 레인메이커는 속한 조직에 매출의 증대를 가져와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나오며 조직의 생명수 역할을 한다. 매출이 없으면 조직은 죽고 만다. 레인메이커의 열정과 도전에 마음이 움직인 고객이 지불하는 돈은 단비와 같다. 그래서 흔히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 레인메이커는 전 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조직에서 조직과 팀의 일원으로 일하며,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을 매료시키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 관여한다. 어떤 사업이든 성공의 가장 큰 요소는 '고객'이다. 그런데 요즘은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을 팬으로 만들어야 성공하는 시대이다. 이제 고객을 감동시켜 팬으로 만들어야 어느 분야에서도 최고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레인메이커는 고객을 중심에 둔다. 그들은 사업의 목적과 성공의 핵심이 고객임을 잊지 않는다. 최고경영자든, 부서장이든, 팀원이든 모두가 레인메이커의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 크게는 조직원의 공통 타깃인 고객이 있지만, 작게는 내가 속한 팀의 팀원이나 상사, 거래처 담당자 등 나 이외 모두가 고객이다. 그 고객을 소중히 생각하고 염두에 둔다면 누구나 레인메이커가 될 수 있다. 결국 '고객의 마음 속에 차이를 만들어 내는 사람' 모두가 레인메이커이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전력투구하는 모든 사람이 레인메이커인 것이다.



진짜 레인메이커 화승과 썩 잘 어울리는 ‘당신’

레인메이커의 '레인'은 일차적으로 돈을 의미한다. 그러나 '레인'이 수익에만 국한되는 좁은 개념은 아니다. 더 확장한 의미로는 가뭄 끝 '단비'와 같은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과 개념이 더 중요하다. 레인메이커의 역할은 숨어 있는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한 방향으로 뚫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다. 조직이나 기업의 난제를 해결해서 돌파구를 제시하고 그래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모든 존재가 바로 레인메이커다.

그런 의미에서 70주년의 역사를 앞둔 화승그룹은 분명 레인메이커다. 지난 시대의 물음에 답하고, 시대의 결핍을 채우고, 때론 시대에 앞서 기술을 발전시켜온 화승그룹. 1953년 전쟁 직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이들을 위해 고무신을 만들고, 70년대 마이카 시대를 맞아 자동차 부품산업과 화학산업에 진출하고, 글로벌 시대 개막을 앞둔 80년대, 90년대에는 세계를 무대로 뛰는 종합무역과 신발ODM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21세기에 들어서는 미래 전기자동차 부품과 친환경 화학 분야까지 도전하고 있는 화승그룹은 진정한 우리시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온 레인메이커다.

이제 화승그룹은 다시 단비를 기원하는 기우사의 마음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길을 나선다. 그동안 축적해온 레인메이커 정신으로 무장한 화승그룹은 다시 단비가 내릴 때까지 열정적으로 춤추고 노래할 것이다.

가슴 뛰는 '차이'를 만드는 당신과 함께. 70

우리는 당대의 진정한



여기 결연한 모습의 인디언 레인메이커가 있다. 가뭄으로 사람들이 굶주릴 때 드디어 레인메이커는 분명히 일어선다. 그는 '내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하리라'라는 비전을 품고, 매일 몰입해서 춤추고 노래한다. 그리고 몇날 며칠을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반복한다. 드디어 레인메이커의 열정이 하늘에 가 닿았을까.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쏟아진다.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반복하는 레인메이커. 그렇기에 레인메이커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큰 비전을 품고, 과정을 긍정적으로 즐기고, 습관처럼 원하는 바를 꾸준히 해냈을 때 그 한 사람은 진정한 '레인메이커'로 불리우게 된다.

레인메이커

우주를 향해

비전을 쏘라!

일론 머스크·제프 베이조스·리처드 브랜슨

작년 5월 지구촌에 이목을 집중시킨 싸움이 펼쳐졌다. 미래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우주를 향한 유인 우주선 발사 경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창업자 등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 앞다퉀 우주개척 경쟁을 벌인 것이다.

2021년 5월 5일 머스크가 지원하는 스페이스X의 달착륙 우주선 시제품 스타십이 지상 10Km 상공으로 올라간 뒤 다시 직립으로 착륙했다. 이 착륙이 가능한 스타십의 성과 덕분에 스페이스X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달착륙선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7월 11일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이 2004년에 설립한 버진 갤럭틱을 통해 직접 승객 6명과 함께 첫 민간기업 우주관광 비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9월 뒤 제프 베이조스가 뉴 세퍼드 유인캡슐을 타고 역시 우주여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세계의 억만장자 3명이 자존심을 걸고 펼친 경쟁으로 이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세 명은 세계적인 기업 CEO이며 우주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세 사람 모두 내면의 상처가 있다는 점이다. 제프 베이조스는 과짜였고, 일론 머스크는 왕따였으며, 리처드 브랜슨은 난독증을 가진 학생이었다. 이런 개인적인 상처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업에서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고, 또한 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광활한 우주를 향한 비전을 펼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레인메이커 정신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다.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레인메이커처럼, 그들은 불가능을 이루고자 말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뛰어든다. 이것이 바로 레인메이커의 가장 강력한 힘, 바로 '비전력(力)'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유머는 힘이 세다!
유재석·강호동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즘, 성공의 첫째 조건은 유머를 잘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머는 얼어붙은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호감지수를 대폭 상승시킨다. 물론 때론 시련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렇기에 어느 순간 성공을 거둘 때면 짜릿함도 더욱 커지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대를 걸쳐 사랑받는 국민MC나 예능인을 꼽으라면 대개가 유재석과 강호동을 꼽지 않을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이들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자가 레인메이커라면, 유재석과 강호동은 탁월한 레인메이커이다. 이 두 사람의 성공비결은 뭘까. 먼저 유재석은 웃음을 만드는 개그맨인데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망가질지언정 남을 비방해 웃기지 않는다. 이런 배려형 개그는 한순간에 콘셉트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무명생활을 통해 단련된 그만의 스타일이다. 직장생활에서도 어색한 게스트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는 유재석처럼 배려해보자.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말이다. 언제나 사소한 것이 상대의 가슴에 큰 물결로 남는 법이다.

유재석과 달리 강호동은 무명시절은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부담스런 외모와 경상도 사투리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큰 덩치와 특유의 말투는 강호동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자신의 단점을 매력으로 바꿔낸 것이다. 약점에 위축되기보다 팀원들과의 역할 분담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노력한 강호동의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이렇게 매일의 일을 도전으로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발산해 성공을 거둔 유재석과 강호동. 비가 언제 올 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고 노래한 레인메이커와 많이 닮아있다.



성공은 재능보다
습관이 밀고 나간다!
손정웅·손흥민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월드컵스타는 손흥민(토트넘)이다. 아시안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골든부츠’를 수상한 손흥민 선수. 그가 월드컵 클래스 레인메이커가 된 이유는 뭘까. 답은 손흥민의 인터뷰에 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실제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 씨는 학교 축구부에 보내는 대신 자기가 선수 시절 느끼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직접 아들을 가르쳤다. 그 스스로가 프로 축구선수 출신이지만,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한국 축구의 고질은 기본과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데서 생겨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손흥민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까지 볼 리프팅, 트래핑 등 기본기 훈련에만 집중했다. “매일 4시간 동안 공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했다. 눈이 빨개지고 바닥이 노래졌다”는 손흥민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매일 수행자처럼 훈련하는 손흥민의 곁에는 늘 손정웅 씨가 함께 뛰었다.

성공은 꿈의 크기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이다. 그래서 성공은 매일매일 습관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다. 매일 똑같은 패턴의 실천은 누구에게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렇기에 아무나 성공의 짜릿한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단순하고 심플하게 마음을 비운 수행자처럼 반복적인 습관을 실행해냈을 때,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떨어지는 단비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린 ‘그라운드의 레인메이커’ 손흥민 선수를 통해 다시 깨닫는다. 70





화승의 미래, 통합기술센터가 책임진다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

중국 전국시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뭇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첨단 문명과 기술이 우위인 시대에도 여전히 울림 있는 화두가 아닐 수 없다. 변수와 위기의 글로벌 상황 속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의 출범 의미도 이와 견줄 만하지 않을까. 흩어진 기술 연구인력을 통합해 화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통합기술센터를 둘러보고,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우원 상무와도 만나보았다.



통합기술센터

**통합기술센터의
출범 목적과 역할**

화승코퍼레이션은 전쟁과 감염병으로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과 완성차 생산 차질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범 계열사 차원의 통합기술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4월 통합기술센터를 출범시켰다. 그동안의 제조업 마인드를 탈피해 토털 엔지니어링 솔루션(구매·소재·설계·생산기술·제품기술)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다. 통합기술센터는 R&D 역량 강화를 통한 주력사업 활성화 및 성장동력 지속 창출을 위한 기술 집약으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통합된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도맡게 된다.

A photograph showing two individuals in a classroom or office environment. Both are wearing black face masks. The person on the left is standing and leaning over a desk, wearing a blue and grey jacket. The person on the right is seated at the desk, wearing a black shirt. They appear to be interacting with documents or equipment on the desk. The background shows a typical indoor setting with wooden paneling and a window.[illegible]

```

graph TD
    A((응용기술담당)) --- B((설비기획실))
    A --- C((탄성재연구실))
    A --- D((SL설계실))
    B --- E((설비기획팀))
    B --- F((글로벌기술지원팀))
    C --- G((인더스트리얼재료팀))
    C --- H((Auto재료팀))
    D --- I((SL설계팀))
    D --- J((FL설계실))
    D --- K((SP실))
    J --- L((FL설계팀))
    K --- M((신규사업팀))
    K --- N((인더스트리설계개발팀))
  
```

31

통합기술센터는

세계를 향해 펌프질하는 화승의 심장입니다

윤우원 상무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 센터장

Interview

Q __ 화승코퍼레이션의 미래 기술을 담당하는 통합기술센터 출범과 함께 센터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현재 센터 상황과 운영에 따른 각오가 있으시다면요?

현재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화승코퍼레이션 계열의 통합기술센터가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료 및 신규사업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센터 오픈으로 자동차 부문 생산기술과 설계 부문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화승이 가진 저력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고 센터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생각에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Q __ ‘통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만의 독특한 조직 구성이나 운용상의 특이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연구소나 회사는 팀별 기능 위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군대처럼 업무분화는 잘 되어 있으나, 서로 협조하는 협력 기반에는 문제점이 있죠. 즉, 전문 분야의 코어 기술은 우수하나, 사업 부문별 연계 업무가 잘 수행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통합기술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조직 구성은 매트릭스 조직 운영입니다. 수직(기능조직)은 각 수직 조직의 요소기술 정립으로 기술의 플랫폼화를 통한 체계적인 신기술 개발이고, 수평(프로젝트조직)은 RHQ 조기 안정화 지원 및 기술의 패키지화를 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Q __ 통합기술센터의 매트릭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먼저 매트릭스 구조 조직의 장단점과 실패 사례들을 잘 파악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구기획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연구기획팀은 프로젝트 조직 간의 업무 혼선을 조정하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 분석, 기술개발 방향 분석 및 전략을 수립, 각 조직별 KPI 수립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직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조직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 표준들을 만들어간다면 화승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원년인 만큼, 조직 운영 및 핵심 요소기술을 잘 정립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__ 통합기술센터 차원의 2022 추진 프로젝트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2022년은 통합기술센터의 원년으로 현 조직의 운영방안과 방향을 설정하여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부문별 책임제를 운영함으로써 각 기능적 조직에 산재되어 있는 설계, 구매, 재료, 생산기술을 체계화하여 단계적으로 기술의 패키지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기능별 요소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해 새로운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Q __ 조직이나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역할자를 ‘레인메이커(rainmaker)’라고 합니다. 통합기술센터는 화승의 레인메이커일까요?

통합기술센터는 화승R&A, 화승네트웍스, 화승코퍼레이션, 화승소재의 핵심 기술 인력 169명으로 구성된 화승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하는 기술 조직입니다. 말씀드렸듯 센터의 역할은 기술을 집약, 내부적으로는 손익 개선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할 것이고 법인 지원을 집중화해 신차 개발 일정 준수 및 부문별 신기술 지원을 통한 매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화승의 중심에서 세계를 향해 역동적으로 펌프질하는 심장이 통합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승의 레인메이커죠.

Q __ 센터 구성원들에게 당부할 말이나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그래야 개인도, 조직도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주고 헤아려주는 지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되새긴다면 사람들 관계나 조직에서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너,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뚝뚝 뭉쳐 화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통합기술센터,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70

단비를 부르는 화승레인메이커들과 만나다

“우리가 맨발로는 걸을 수 없잖아요. 신고 있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르는데, 없으면 제일 불편한 게 신발이에요. 설계작업의 특성도 이와 닮았습니다. 바탕이 되는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문제가 따르는 것은 어찌면 당연합니다. 화승의 모태가 신발이듯, 화승에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신발 같은 존재감과 정체성을 갖고 싶다는 김국현 실장, 1998년 설계 담당으로 입사해 현재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 FL설계실을 책임지고 있다. 그 이전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내 그것을 매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설계의 가치이자 매력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설계란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가치창조를 위한 FL설계실의 계획이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RHQ와 FL BU(Business Unit)에 양질의 엔지니어링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친환경 모빌리티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화승의 신제품을 개발·양산해 매출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에게 조직 차원의 가시적 계획 이외의 포부에 대해 묻자, 존재감 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1등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입니다. 화승이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보다는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신발 같은
존재감으로,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김국현 실장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
FL설계실



성실의
아이콘으로,
지속가능한
역량 발휘를

박상희 실장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
SL설계실

기업경영이나 비즈니스 환경에서 인디언 사회에서 유래되었던 ‘레인메이커(Rainmaker)’라는 용어가 다양한 상징과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화승에는 이런 개념적 표현에 부합된 실재적 인물들이 있다. 바로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 꼭 필요한 비를 부르는, 단비 같은 화승 레인메이커들이다.



차량의 웨더스트립 부품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SL설계실의 박상희 실장, 남성 위주의 기술 조직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녹록지 않았으리라. 화승을 첫 직장으로, 딸 둘 가진 직장맘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왔고 어느덧 큰딸이 자신의 입사 때 나이가 되었다고 한다. 격세지감이 느껴진다는 그의 지속가능한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주변 얘기를 옮겨보자면 성실함의 결과? 입사 동기나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이 붙여준 별명이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민망한 듯 웃는 표정에서 그동안 해온 업무적 특징과 일에 대한 그의 태도가 느껴진다. “웨더스트립 자체가 아주 민감한 아이템이라 새로운 타입을 시도할 때마다 고민하고 배워가며 일합니다. 누군가는 도면을 발로 그려도 되지 않냐며 농담하지만 새로운 부분이 늘어나면 서 하게 되는 고민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항상 깨어있고 공부하게 하는 것이 업무의 장점이라 꼽는 박상희 실장, 여자 후배들의 롤모델이자 새로 오픈한 통합기술센터의 구성원으로서 다짐과 바람 또한 빼놓지 않는다. “SL설계뿐만 아니라 새로 통합된 조직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애정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개선, 발전시키려는 마음과 실행력을 갖춘다면 화승에서 꼭 필요로 하는 존재,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연구원의 에너지가 연구소의 시너지로

김군도 팀장

화승케미칼 중앙연구소
자동차소재연구팀

자동차 웨더스트립용 코팅제, 국방부 아이템, 자동차 내장재 및 산업용 접착제, 케케어 제품, 타이 어 펑크 방지 실란트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김군도 팀장은 화승케미칼 중앙연구소 자동차소재연구팀 소속이다. 1997년에 입사해 화승케미칼 화학사업부(대보화학→화승T&C→화승인더스트리→화승첨단소재→화승케미칼) 25년여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기도 하다.

기업 부침의 과정 중 이룩한 성과로 국내 최초 웨더스트립용 실리콘 코팅제와 수성 코팅제 개발을 통해 글로벌 코팅제 시장에 진출, 세계 유수의 차종에 당사 코팅제를 적용시킨 사례를 꼽는다. 이에 더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기능성, 고품질의 코팅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에게 화승케미칼 중앙연구소만의 강점에 대해 물었다.

“케미칼 분야 다양한 핵심 기술 연구인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구소 내 다른 기술 보유 팀으로부터 기술 자문은 물론, 적극적인 협조로 시너지 효과가 우수하죠. 우리 자동차소재연구팀 또한 핵심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팀 내외 소통은 물론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강점을 찾아내고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에너지가 곧 팀의 시너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김군도 팀장, 팀을 관리하고 연구소를 조율해 나가는 그의 지속적인 역할 또한 기대해본다.

연구소와 현장을 이해하는 책임감 강한 존재로

김병기 팀장

화승케미칼 중앙연구소
신발소재연구팀

신발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접착제, 프라이머, 세척제, 경화제 등) 개발 및 지원,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 아이템 창출 및 개발 타당성 검토 등이 주 업무이며 조직 차원에서는 팀원들의 효율적 업무분장 및 진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병기 팀장, 신발용 접착제 연구 분야는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연구원이 고객들과 직접 만나 제품 개발 협의 및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 제조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다행히 화승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화승비나 제조 라인을 통해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연구소와 현장 평가 간의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 및 개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화승케미칼 중앙연구소만의 자랑이라고 한다. 화승에서 15년 넘게 신발용 접착제 개발 업무를 진행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함께한 기술 선배 동료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김병기 팀장. 그는 조직에서 어떤 존재이고 싶을까.

“조직에서 단비와 같은 존재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 한순간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꾸준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노력한다면 꼭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그런 존재이고 싶습니다.” 70



변화는 새로운 결합입니다.
새로운 결합에는
서로 간의 참다운 포용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 그 어떠한
도전도 충분히 이겨내고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승R&A 김형진 대표이사 취임사 중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결합, 화승으로부터

화승R&A 김형진 대표이사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변화와 도전,
화승이 정상을 유지하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편이다. 더불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리더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해지지 않을까. 그 중심에
화승R&A 김형진 대표이사가 있다.
미국 근무를 마치고 국내에 복귀,
새로운 변화와 시도 앞에 선
그의 이야기에 주목해본다.

화승 자동차 부품 수출의 물꼬를 트다

1998년 화승R&A에 부품수출과가 생기면서 입사를 한 그는
밑에 직원 한 명을 두고 화승 자동차 부품의 수출과 해외 현
지화에 올인한다. 2006년 임원이 된 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에 근무하며 이후 2008년 미국 앨라배마의 미국법인
장으로, 2016년엔 디트로이트로 근무지를 이동했고, 13년의
미국 근무를 마치고 2021년 화승R&A 영업본부장으로 경남
양산에 복귀한 후 올해 대표이사로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추진력,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그만의 타임테크

대표이사 자리까지 기대는 하지 않았다는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담도 크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모든 것을 쏟아부을
채비를 마쳤다. 추진력, 실행력이라는 그만의 유니크한 원동
력을 바탕으로 화승R&A의 체질 개선에 첫발을 내디뎠다. 아
침 6시 20분이면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는 그는 하루를
1년 같은 마음으로 분 단위의 타임테크를 한다. 누구보다 바
쁘고 그 와중에 방향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성과를 내기 위
한 촘촘한 시간의 쪼갬, 그 속에서 그는 더 빛이 난다.

세상에 평범한 것은 없다. 사람이 평범하게 만들 뿐이다

그에게 가장 울림이 되는 문구이자 그의 생활을 움직이는 글
귀라고 한다. 인터그레이티드한 조직을 위해 최근 화승R&A
의 조직 시스템을 정비한 그는 BU(Business Unit)를 도입, 통
합과 집중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알렸다. 발 빠른 결정과 실행,
그리고 책임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임파워먼트(리더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 자원에
대한 통제력 등을 부하에게 배분 또는 공유하는 과정)를 실행
중이다.

화승의 시너지로 우리의 에너지를 만든다

화승코퍼레이션과 통합기술센터, 그리고 화승그룹의 각 사
와의 온전한 시너지를 통해 화승R&A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
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라는 그는 해외통인 만큼 국
내외를 연결하는 그만의 능력치를 모두 쏟아부을 예정이다.
단순히 자동차 부품을 생산만 하는 기업이 아닌 개발, 설계
를 통한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화승R&A만의 노하우를 바탕
으로 차별화된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화승R&A를 리포
지셔닝해 나갈 계획이다.





작은 생각 하나가 바꾸는 큰 변화

화승에 오기 전 직장에서 그는 막내로서 복사하는 일
이 잦았는데 해외 기관지를 매주 번역해 직원들이 함
께 공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의 작은 배려가 영업에 있
어 큰 정보가 되었고 바이어와의 대화에도 적극 활용
되는 것을 보며 작은 생각 하나가 유연한 결합의 큰 힘
이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우쳤다고 한다.

화승의 모든 MZ 세대들에게

‘낙장불입(落張不入),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사자
성어를 좋아한다는 그는 화승의 MZ 세대들에게 7의
운도 있지만 3의 기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단다.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세
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삶,
어느 끈대의 되뇌임이 아니라 한 선배의 진심 어린 조
언으로 생각해봤으면 한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화
승R&A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기대하며 그에 대한
글을 더 쓰기 보단 그가 대표이사로 직원들에게 직접
쓴 글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한다. 70



어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으로서 이러한 자리가 분에 넘치는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제가 과연 큰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앞서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 상황은 오늘날처럼 심한 격동의 때
를 맞이해본 적이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붕
괴에 따른 혼돈 속에 우리는 향후 생존과 미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란 새로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이나 소극적이나의 문제입니다. 하루하
루의 변화에 대해서 애써 눈 감고 모른 채하는 사람과 순간순간 변화에 깨어 있으면서 당당히 맞서는 사람의 차이는 각도계
의 눈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Agile(민첩)한 모
델을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BU조직은, 조직 내 기능을 통합하여 보다 독립
적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직 구조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결합입니다.” 새로운 결합에는 서로 간의 참다운 포용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겠다는 의지와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과제와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떠한 도전도 충분히 이겨
내고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지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
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며 우리의 도전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열심히 쫓아만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을 누군가에 의존해 찾아왔습니다. 그러
나 이제 우리는 어느덧 누구에게 의존할 수 없을 만큼 성장을 하였고, 이제는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위
치에 와 있습니다.” 답은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열려있는 조직, 위기에 당당히 맞서 극복할 용기를 가진 조직, 그리고 항상 현장을 중시하는 조직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가치
혁신을 이루어갈 때만이, 화승R&A는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김형진 대표이사 취임사에서



당신의 취향에 맞는
고기를 찾아드립니다

커스텀잇

화승그룹의 계열사인 푸드테크 기업 여덳끼니(대표 정용한)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초입에 프리미엄 식문화 공간
커스텀잇(CUSTOM EAT)을 오픈했다.
몸에 꼭 맞는 맞춤복처럼 고객의 취향에 딱 맞는 음식을 추천하고
제공하는 커스텀잇만의 특별한 행보를 소개한다.

CUSTOM EAT



깔끔한 크림색 파사드를 지나 매장으로 들어서자 가지런하게 진열된 상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패키지만 봐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품들이다. 냉장 매대에는 한우와 한돈이 고운 빛깔을 자랑하고 그 옆으로는 깔끔하게 포장된 간편식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 왼편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깔끔한 정육점이 손님을 맞이한다. 고기 두께를 가늠할 수 있도록 비치한 나무판이 독특하다. 정육점 옆으로는 레스토랑 입구가 보인다.

질 좋은 고기를 맞춤 구매할 수 있는 정육점과 간편 조리 식품 및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로서리, 프리미엄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식료품점을 뜻하는 그로서리와 레스토랑의 합성어인 그로서란트(grocery+restaurant) 콘셉트의 복합 식문화 공간이다. 식사 재료와 식사 공간이 동시에 판매된다는 것, 유통과 외식이 믹스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프리미엄 미식의

쇼룸 레스토랑

일단 커스텀잇의 레스토랑을 경험해보자. 커스텀잇 레스토랑의 디너 코스는 샴페인으로 시작한다. 와인, 위스키, 리큐어 등 각 메뉴에 어울리는 술을 소믈리에가 직접 서브하는 페어링 서비스는 꼭 곁들이길 추천한다. 에피타이저로 도미 세비체 또는 한우 본매로우(골수) 구이와 샐러드, 부라타 치즈와 엔다이브 샐러드, 썬란 한치 튀김이 차례로 제공된다. 특히 본매로우는 소에게 얻는 제2의 버터라고 불릴 정도로 풍미가 좋은 고급 식재료이다. 전문 셰프의 손을 거쳐 섬세하게 조리된 메뉴들은 눈과 입을 즐겁게 만든다.

메인은 티본, 엘본, 채끝등심, 안심, 비프립 중에서 택할 수 있는데 시그니처 메뉴는 단연 티본 스테이크이다. 한우로 두껍게 썰어서 제대로 구운 티본 스테이크는 쉽게 만날 수 없기에 더욱 추천할 만하다. 고기 맛을 더욱 돋워줄 치미추리, 말돈 소금, 홀스레디쉬,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가 곁들여지고 맥앤치즈, 고추씨 백김치, 공심채 무침, 건두부와 고추무침, 아스파라거스가 마치 한정식 밥상처럼 풍성하게 차려진다. 전혀 어색함 없이 동서양의 다양한 식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식사 마무리로 라임 소바, 김해식 멸치국수, 한우 장조림 비빔국수, 초리초 후추 볶음밥 중에 택할 수 있고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한다. 어느 하나 아쉬움 없이 꽉 찬 식사이다.



3

1



2



- 1 숙성된 도미회와 레몬 비네거, 크리스피 어니언, 적양파, 락교, 무순, 라임이 상큼하게 조합된 도미 세비체
- 2 최적의 온도로 칠링된 샴페인 한 잔이 식사의 시작을 알리며 향긋하게 혀를 깨운다.
- 3 커스텀잇 레스토랑 전경. 섬세하게 조율된 공간도 미식 경험의 중요한 요소이다.
- 4 5 프리미엄 한우를 20여 일간 숙성해서 사과나무 장작에 직화로 구운 한우 티본 스테이크

4 5





- 6 특별 제작된 나무판을 보면서 원하는 고기의 두께를 가늠해볼 수 있다.
- 7 취향에 맞는 고기를 전문가와 상담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정육점
- 8 고기 요리에 어울리는 각종 식료품부터 매장에서 바로바로 만드는 반찬과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판매 중이다.
- 9 폭신폭신한 파운드 케이크 위에 달콤한 슈가 시럽과 새콤한 레몬 맛이 더해진 레몬워렌드
- 10 고품량의 우유가 함유된 크림이 들어간 버터크림라떼는 스카치캔디맛 커피로도 불린다.

6

7

8



레스토랑과 그로서리의 교차

커스텀잇의 매력은 레스토랑 한 끼 식사로 끝나지 않는 데 있다. 커스텀잇의 고기가 마음에 들었고 전문 셰프의 조화로운 메뉴 구성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 경험을 우리 집 식탁까지 가져갈 수 있다. 레스토랑을 나하면 맞춤 주문이 가능한 정육점이 있고, 맞은편 그로서리 코너에서는 고추씨 백김치와 말돈 소금이 판매되고 있다. 커스텀잇은 레스토랑을 쇼룸 삼아 프리미엄 식재료를 최상의 요리로 제공하고, 정육점과 그로서리 코너를 운영하며 일상에서도 미식의 기쁨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끈다. 미식 체험의 장이 단순히 하나의 오프라인 매장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일상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또 그로서란트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식재료의 투명성이다. 아무리 맘에 드는 레스토랑이라도 어떤 식재료가 사용되는지 고객이 알기란 어렵다. 하지만 커스텀잇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한우와 커스텀잇의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모두 최상의 품질로 관리된 커스텀잇의 한우이다.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나 정육점이 중간 유통사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는다면, 커스텀잇은 직접 한우 생산 유통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프리미엄 한우를 직접 선별하고 자체 가공하여 판매한다. 유통 단계를 줄이면서 엄격한 퀄리티 관리를 거쳤기에 한우 본연의 식감과 풍미가 살아 있는 프리미엄 정육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다. 이 정육점에서 고객은 원하는 고기의 부위, 두께를 상담해서 취향대로 구매할 수 있다.

9 10



커스텀잇의 그로서리 코너에서 판매되는 가정 간편식들은 매장에서 셰프들이 직접 조리한다. 레스토랑에서 선보였던 백김치와 같은 메뉴뿐만 아니라 한우 소불고기, 제육볶음, 시금치 커리, 라구 소스, 한우 장조림, 대파 김치 등 다양한 밀키트와 반찬이 준비되어 있다. 더불어 프리미엄 고기 요리에 어울리는 상차림을 위한 식료품들인 소금, 올리브 오일, 엔초비 필렛, 아티초크 절임, 파스타 면과 토마토 퓨레, 감자칩 등도 판매 중이다.

여덟끼니의 팜투테이블을 향한 큰 그림

커스텀잇은 푸드테크 기업 여덟끼니가 육류 생산부터 가정 간편식의 제조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팜투테이블(Farm-to-table)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여덟끼니는 2009년 버거 전문점 아이엠버거를 시작으로 한식 전문점 면주방과 안주방, 커피 전문점 하프커피 등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를 다년간 경영해왔다. 그중 최근에 오픈한 하프커피 10호점은 커스텀잇 매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크림 도넛을 비롯한 베이커리를 같이 판매하는 지점은 성수점 다음으로 두 번째이다. 하프커피의 시그니처 메뉴인 버터크림라떼는 최근 단일메뉴 누적 판매량이 150만 잔을 돌파했다.

프리미엄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향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졌다. 여덟끼니는 이러한 경향에 주목하고 육가공 업체 미트맵을 설립하며 프리미엄 원물을 직접 가공하는 영역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 우수한 한우 농가를 관리하고 가공 과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고기의 질을 꼼꼼히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 평창 농장에서는 서울대와의 협업으로 유전자 우수한 소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재료의 프리미엄화에 중점을 두고 팜투테이블 수직 계열화를 본격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김경훈 이사

여덟끼니 디지털전략본부 본부장

고객의 취향과 고기의 참맛을 데이터화하다

푸드테크 기업 여덟끼니의 비전

커스텀잇의 모토는 취향 맞춤이다. “모두에게 맛있는 고기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맛있는 고기를 제공합니다.” 커스텀잇의 레스토랑 메뉴나 델리 제품은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다. 일정한 기간마다 바뀐다. 커스텀잇 직원들은 수시로 매장을 방문해 고객의 반응을 수집하고 온라인 피드백을 반영해서 계속 메뉴를 개발한다. 고객 개개인의 취향을 데이터화하는 전략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매일 누구보다 바쁘게 현장을 오가고 있는 디지털 전략본부 김경훈 본부장이다.

김경훈 본부장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시니어 매니저로서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전략 업무를 지원했던 IT 컨설턴트 출신이다. 푸드테크 기업을 표방하는 여덟끼니와 아마존 출신 데이터 전략 전문가와의 접점은 무엇일까? 디지털 전략은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이해하고 상품을 소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케팅의 중추가 될 수 있다. “커스텀잇은 취향 맞춤을 지향합니다. 그러려면 상대의 취향을 파악해야 하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개별 고객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한 아마존의 사례처럼, 커스텀잇은 프리미엄 식재료를 맞춤 추천하고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식품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김 본부장의 설명대로 커스텀잇은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공간까지 지평을 넓히며 고객의 취향 맞춤이라는 모토를 향해 나아갈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지역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다시 온라인 커머스와 식문화로 시작하는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로 확장하고자 구상 중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쌓인 고객 경험과 신뢰는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취향 맞춤이 고객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과정이라면 그게 제가 아마존에서 해오던 일입니다. 그만큼 전략 방향이 맞는 일도 없겠죠.” 푸드테크 기업 여덟끼니와 아마존 출신 데이터 전문가의 만남은 이토록 설득력이 있었다.

커스텀잇은 확립화된 맛에서 벗어나 가장 좋은 재료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당신의 취향에 맞게 추천하고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식품 플랫폼입니다.

평소 틈나는 대로 육류 백과사전을 읽고 육류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찾아본다는 김경훈 본부장은 이렇게 공부하면 현장에서 소통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한 우 농가를 찾아가 IT로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하고 매장에서 고객을 접대하는 직원과 이야기하며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정용한 대표를 비롯한 내부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수평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진다. 투명한 피드백을 통한 협업으로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늘 변화하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롭게 시도하고자 서로 독려한다는 여덟끼니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자체가 커스텀잇의 미래를 대변한다.

앞으로 여덟끼니의 커스텀잇은 새로운 카드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프리미엄 식재료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고객의 취향 데이터를 수집하는 최신의 기술, 직원들의 열정이 더해져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경험을 안겨줄 커스텀잇의 미래가 기대된다. 70



복싱하는
화승인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더 크고 더 세계 어퍼컷!

칼퇴가 당연한 직장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요즘 직장인들, 주말 혹은 퇴근 이후의 활동을 통해 각자의 개성과 정체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 주인공은 포커페이스다. 반전 매력을 장착한 화승케미칼 화학마케팅팀 배재익 매니저, 부드럽게 보이는 화승인 이면의 아마추어 복서다운 포즈들을 담아보았다.

자기소개와 담당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화승케미칼 화학마케팅팀에 입사한 배재익 매니저입니다. 주로 기업과 기업 간 B2B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화학회사이다 보니 관련 전문용어가 많아 초기엔 애 좀 먹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일하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나 팀원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팀장님과 팀원들 사이가 좋습니다. 마케팅팀답게 당연히 좋아야 하고요. 업무적으로도 잘 맞아 원만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합이나 화식이 많지는 않지만요(웃음).

복서 이미지는 아닌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12년 전 친구들과 함께 처음 여기 이상우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체육관에 온 게 계기가 되었어요. 이미 선수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함께 운동하면 더욱 쉽고 재밌게 배울 거 같아 거부감 없이 시작하게 됐지요.

그때 친구들도 여전히 복싱은 하고 있나요?

초창기 친구들은 결혼과 함께 하나둘 시합출전과 운동을 그만두었고요. 운동 계속했던 친구는 얼마 전 체육관을 오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심한 상황입니다. 본업이 있는 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지속하고 있는 셈이죠. 예전처럼 운동 루틴을 따르지는 못하지만요.

복싱과 업무,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본적으로 복싱은 체력단련이에요. 보통의 직장인들이 늦게까지 야근한다면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복싱은 오히려 일찍 일어나고, 다음날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업무도 순조롭고 능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 윈-윈이죠.

초보자들을 위해 복싱 과정을 말씀해주신다면?

성급한 복싱 입문자들은 줄넘기 좀 하고 바로 링에 오르는 줄 알아요. 줄넘기, 스트레칭 같은 준비운동을 하고 샌드백 앞에서 반복적인 기본 기술 동작을 해야 합니다. 줄넘기는 스텝을 위해 프로여도 반복해야 하는 훈련이고 스트레이트, 잼, 어퍼, 훅 같은 단순한 기술도 반복적으로 몸에 익혀야 정확한 동작을 구사할 수 있어요. 복싱은 상대의 순간적인 공격에 맞서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운동인데 초보자들은 가장 중요한 반복적인 기본기와 체력 훈련을 버티지 못하고 초장이 그만두곤 해서 안타깝습니다.



복싱의 매력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중독성이 강합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동작에 3~4개월 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시기만 넘기면 안하고는 못 배겨요. 마라토너들이 달리면서 느낀다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처럼 복싱에도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성은 복싱을 꾸준히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방어를 위한 운동이지만 결국 꾸준히 할 수 있는 근성, 지속성을 키워주죠. 그게 꼽을 수 없는 매력이기도 하고요.

복싱하면서 부상이나 주위의 우려는 없나요?

운동하다 허리가 다쳐서 119에 실러 가보기도 하고 복싱 선수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복서골절로 여러 번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와이프가 됐지만, 연애 시절엔 여친 걱정할까봐 시합도 몰래 나갔습니다. 부산사직운동장에서 열리는 부산광역시복싱협회장배 -63kg급, -69kg급 시합에 출전한 경험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결혼 후에는 체육관에 오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옛날이 그립습니다(웃음).

첫 경기 후의 소감과 주무기는 무엇인가요?

복싱 시작한 후 2년쯤 지나서 처음 링에 올랐는데, 제대로 된 기억이 없어요(웃음). 3회 마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이 들려 있었고, 판정승으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경기부터는 정신 차리고 제 스타일과 페이스를 되찾게 되어 8강에서 KO승, 계속해서 준결승, 결승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판정으로 은메달을 땀지만요. 특기이자 주무기라면 아웃복싱과 라이트 스트레이트 카운터 펀치입니다.

화승인으로서, 복서로서의 존재감을 말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과 운동은 상생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화승케미칼 카-케어 브랜드 카루미(CARUMI)를 홈쇼핑에 홍보하기 위해 인서트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느라 밤늦게까지 작업했거든요. 활력 있게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복싱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외부로부터 어떤 기술(?)이 들어와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촬영 협조 부산복싱클럽 남포동점(051-244-0155)

“복싱은, 나를 모든 부분에서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면 그 종목과 업무의 끝까지 가보는 것 또한 복싱을 통해 발견한 그만의 성향이라고 한다. 그의 복싱 효과가 요즘엔 카루미 마케팅 업무로 나타나는 중이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1위 제품을 만들기 위한 카루미 B2B 시안 작업 및 기획, 이에 따른 각종 마케팅 업무에 빠져 있는 배재익 매니저. 하루빨리 운동 루틴을 되찾아 화승인으로서 더 크고 더 센 어퍼컷 결과를 기대해본다. 70

희망이 달립니다, 행복이 함께합니다

화승, 부산 복지기관에 맞춤형 차량 기부

화승그룹은 지난 4월 6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부산 지역 사회복지기관 5개소에 차량 기부를 위한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 원을 기부한 화승은 이중 1억 5천여만 원을 지정 기부 사업으로 편성, 부산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기부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다. 희망이 달리는 행복한 현장을 담아보았다.



화승이 달립니다!

화승그룹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차량 기부 사업을 펼쳤다. 장애인, 아동, 노인, 취약계층 식품 운반 등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으로, 해당 기관에서 희망하는 차종을 전달하는 행사가 지난 4월 화창한 봄날에 진행되었다.





5개 기관에 5대 차량, 화승이 함께 달립니다!

화승그룹의 차량 기부 사업에 선정된 복지기관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노인복지관, 새들원, 한울타리지역아동센터, 사상구푸드마켓까지 총 5개 기관. 각 사회복지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차량으로 경차, 승합차, 냉장탑차 등 차량 5대가 지원되었다.



“풀옵션으로 지원합니다!”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차량 지원

장애인복지기관은 복지 수혜지역의 특성상 좁은 골목길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경차를 지원했고, 운행이 잦은 아동·노인시설의 경우 넓고 편안한 좌석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를 지원하였다. 또 식품을 취급하는 푸드마켓에는 음식 변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성능의 냉장 설비를 갖춘 탑차가 전달되었다.





엄격한 사전 검증을 거친 차량 기부 사업

지난해부터 부산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기부 공모사업을 실시한 화승그룹. 차량이 없거나 노후되어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복지기관이 참여한 이번 사업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심사위원단을 구성, 기관들의 차량 보유 대비 사례 관리 현황을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까지 진행한 결과, 5개 기관의 지원을 확정하였다.

희망과 행복을 공유합니다! 화승이 함께 합니다!

부산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량 기부 전달식에서 화승그룹 김정식 상무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수혜대상자들은 물론 열악한 현장 곳곳을 누비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량 기부에 선정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승희 관장은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와중,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너무 기뻐다”며 “더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복지 서비스로 수혜대상자들과 기쁨을 나누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백혈병소아암환아 후원, 화승꿈틀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해 교육후원 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화승그룹,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70



STATION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비대면 일상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모여
서프라이즈한 오늘과
어메이징한 내일을
만든다는 것도요.
화승인 여러분,
함께라면 우리 모두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 1 고택을 체험하는 이들이 정담을 나누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누마루 공간
- 2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편액(충신당)과 눈썹지붕이 특징인 고택의 사랑채
- 3 봄이면 고택 곳곳을 화사하게 장식하는 영산홍과 70년 수령의 매실나무
- 4 솥을대문 문고리를 열어젖히면 고스란히 드러나는 동계정은 고택의 품모
- 5 구한말 왕세자 이강 공이 두 달간 머물렀다는 사랑채 큰방
- 6 종손, 종부의 손길과 수고로움을 부르는 고택 담장과 그 아래의 수목들
- 7 고택을 체험하는 이들이 편안하게 소요할 수 있게 마련된 하얀 고무신

선조의 유지와
후손의 도리가
살아있는 터전
_____。

충·효·예를 글로 배우는 시대에 종가(宗家), 종택(宗宅) 운운하는 게 다소 시대 역행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의 정신과 생활 문화가 저마다의 집안에서 이뤄지고, 이어져 왔음을 상기한다면 재고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대와 시절을 떠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대의 유지를 받들며 후손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 종가 사람들, 그들이 사는 종택은 특별하게 다가온다.

경상남도 거창의 국가민속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205호)로 ‘충신당(忠信堂)’이라는 당호를 지닌 동계정은 고택이 그렇다. 조선 중기 문인이었던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년) 선생의 후손들이 사당에 제를 지내며 살아온 종택으로, 현재 고령의 14대 최희 종부와 15대 정완수·류성규 부부가 생활하는 곳이기도 하다. 고택의 품모가 예사롭지 않다. 솥을대문이 있는 대문(간) 채를 들어서면 정면으로 ㄱ자형 사랑채가 있고, 꺾어진 측면 누마루의 눈썹지붕이 눈길을 끈다. 사랑채 뒤쪽은 ㅡ자형의 안채로 이어진다. 안채 옆으로 우물이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장독대가 보여, 종택의 살림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안채 뒤쪽으로 더 들어가면 따로 담장을 두르고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 있다. 이외에 중문채, 아래채, 곳간채가 고택 안 한올 타리에 자리하고 있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가 명품고택으로 선정했던 이곳은, 현재 살림 공간인 안채와 제를 올리는 사당을 뺀 나머지(대문채, 중문채, 사랑채, 아래채)를 일반 대중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좋은 공간을 함께 향유하자’는 지역 군청의 요청과 때마침 문화재청과 관광공사가 협업으로 멸실되어가는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고택, 종갓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동참하면서부터다.



8 9

- 8 종부로 주어진 삶이니, 수고롭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류성규 종부
- 9 동계(桐溪) 정온(鄭溫) 선생의 뜻을 기리며 대대로 제사를 올리는 사당
- 10 소박한 화초들로 고택에 화사함을 더하는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중정
- 11 예전엔 여인들의 공간. 지금은 살림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채 풍경
- 12 종가의 내림 음식과 솜씨. 종택의 규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창독대

10 11 12



일상 속 공간이자
함께 향유하는
공간으로
——— ◦

유교문화의
축으로서
계승되어야 할 종택
——— ◦

📍
충신당 동계정온 고택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동1길 13
www.jungon.co.kr

고택체험 및 기왓골식품 문의
055-942-0173

“저희 어머니가 경주 최부잣집 큰딸이신데, 처음엔 반대가 심하셨어요. 아무래도 낯선 이들이 출입하게 되니까요. 여러 차례 어른을 설득했죠. 한옥은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허물어지지 않고, 특히나 사람의 왕래가 있어야 집안에 훈기가 돌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올해로 8년째 동계정온 고택을 숙박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류성규 종부의 말이다. 차원이 다른 살림 규모가 느껴지는 종택의 관리 방법이 궁금했다. “수고롭게 살아야죠, 수고롭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처럼 되지 않지만, 종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사람의 손길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건 비단 가옥들뿐만 아니다. 전국에서 고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담장을 에둘러 있는 수목이나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중정, 그리고 마당 곳곳에 놓인 화분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매년 봄이면 화초심기에 골몰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이라면 사람 손 덜 타고 스스로 잘 살아남는 것을 심는 것. 종택 뒤편으로 크고 오래된 나무들로 무성한 선산이 있어, 오히려 내부 정원은-14대 최희 종부의 취향이기도 하지만-작은 나무와 꽃, 화분 등으로 소박하게 가꾼다고 한다. 그래도 봄이면 영산홍을 비롯해 여름에서 가을까지 메리골드, 한련화, 만데빌라 등이 고택의 풍경을 화사하게 연출해낸다.



초계 정씨 일문의 내력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취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충신당 동계정온 고택, 당호는 정온 선생의 학덕과 품성에 감화를 받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귀양에서 돌아와 ‘충신당’이라는 편액을 써준 데서 비롯되었으며 사랑채는 구한말 왕세자 이강 공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대들보가 우람하고 서까래가 견고하며 기둥이며 문설주가 틀어진 데 없이 곧은 고택은, 선산의 소나무(금강송)로 지어졌으며 궁중 목수가 아니면 지을 수 없다는 극찬까지 받았다.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교수가 각별하게 여기는 곳이라는 후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종택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종가를 지키는 이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고로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집안 고유의 내림 장맛과 종부의 솜씨가 더해진 종가 음식이 가내에 머물지 않고 ‘기왓골식품’이란 이름으로 일반에 선보인 것 또한-종가 음식에 대한-대중적 관심뿐만 아니라 종택을 보존하고 계승해나가기 위한 방편이지 않을까. 14대에서 15대 종부로 이어진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며 장아찌, 육포 솜씨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종가는 유교문화의 축이잖아요. 충과 효를 강조하고 의롭게 생각하는 유교는 행동철학이기도 하고요. 오랜 세월을 닦아온, 귀한 정신문화는 세대와 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택은 이러한 근간이 이루어진 곳이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시대 종가, 종택의 존재 의미에 대한 류성규 종부의 생각이다. 유튜브를 통해 종택 관련 영상이 구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면서 더욱 바빠진 일상을 보내고 있는 종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자란 말 중에 염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것이었는데, 최근 구독자로 만난 화승 현승훈 회장님 덕에 면구스럽고 염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며 14대 종부이신 시어머니와 종택에 관심 가져준 데 대해 재차 고마움을 전한다.

가족, 가계, 가문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지만, 즐거와 가치가 바람을 호흡하고 햇볕을 만끽할 수 있는 건 뿌리가 존재해야 가능한 일이다. 종가, 종택의 의미가 새삼스러워지는 이유이자, 충신당 동계정온 고택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 할 이유이지 않을까. 70

Phan Thiet



‘화승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어메이징 패밀리’로
함께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에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전해졌다. 일상의 활력과 업무의 능력을 위한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어메이징 패밀리 프로그램’이다. 화승비나, 화승폴리텍, IBS, 포스핀, 대영, S-print, 유니팩스 등 화승엔터프라이즈 각 계열사에서 선정한 모범사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떠나는 판티엣 여행이다. 눈물과 감동의 현장을 스케치해보았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이 일상이었던 시간들

2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전 세계는 코로나와 싸워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더불어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세상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화상 만남이 더 익숙해졌고, 단절이라는 단어가 생활 곳곳에 새겨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낯선 옛 얘기가 되었고, 함께하던 밥 한 끼, 따뜻한 인사 한마디도 아끼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는 언제나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요즘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붕괴되고 심지어 가족 해체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행복한 미소를 띌 수도 있게 됩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시작

화승엔터프라이즈도 그랬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긴 단절의 시간을 깨고 화승엔터프라이즈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으로 로그인하는 새로운 프로그



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드러내기 힘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보듬고 서로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의 힘을 믿기에 어느 가족 하나하나 대단하고 놀랍지 않은 가족이 있을까, 그런 마음에 지어진 프로그램의 명칭이 ‘어메이징 패밀리’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화승엔터프라이즈의 계열사인 화승비나, 화승폴리텍, IBS, 포스핀, 대영, S-print, 유니팩스에서 선정된 모범직원과 그들의 가족을 자연으로 초대하여 직원들 리프레시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의 행복까지 제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매월 모범직원과 가족을 포함한 40여 명이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베트남 남부의 휴양지 판티엣으로 떠나는 2박 3일간의 행복한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남부 판티엣에서 펼쳐진 화승 가족 휴양 여행

적게는 3살 아이부터 많게는 82세 어머니까지, 가족의 손을 잡고 도착한 화승비나에서 가족들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근무하는 회사가 규모도 크고 자동화가 잘되어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소개를 마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은 가족들의 마음을 보다 따뜻하게 했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든 신발과 유니팩스에서 만든 모자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준비된 텀블러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조식품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서 준비된 선물을 받은 가족들의 표정은 세심한 배려에 감동과 고마움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회사 소개와 현장 견학을 마치고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판티엣은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남중국해 판티엣만에 위치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참여한 가족들은 크고 깨끗한 리조트에 도착해

서 휴식을 취한 후 작은 고대 사원 건물이 있는 포사이누 탑과 무이네에 있는 사막을 찾아 난생처음 타보는 지프차 경험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햇살이 뜨거운 오후에는 가족들과 수영으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팀빌딩 게임과 진흙 마사지 등 헛수가 거듭될 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은 가족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가족

마지막 날 저녁 식사는 특별히 해산물 뷔페로 준비되었고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와 즐거웠던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 콘테스트의 결과도 함께 나눴습니다. 부모님께 쓴 편지에는 늘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감사 마음이 절절히 적혀 있었고 그동안 부끄러워서, 바빠서 하지 못했던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는 가족들의 눈가에 눈물을 고이게 했습니다.

이렇듯 가족은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아쉬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며,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이 놀라운 가족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어메이징 패밀리였다는 사실을 모두 느끼게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화승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70

이 프로그램은 2022년 2월부터 동나이에 있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남부 지역에 락자, 속짱 공장과 비탄에 유니팩스도 3월부터 매월 푸퍹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줄거리

영국 요크 시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로빈슨 크루소, 부모님이 원하는 평범한 일상을 거부하고 19세 되던 해 집을 떠나 첫 항해에 오른다. 항해 중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가라앉는 위험천만한 경험을 한다. 가까스로 구조되지만 뜻하지 않게 노예 생활까지 하게 된다. 결국엔 탈출에 성공하고, 로빈슨 크루소는 포르투갈 선장의 도움으로 브라질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게 되지만, 무역을 도와달라는 주위 사람들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항해에 나선다. 그러나 카리브해 인근에서 배가 난파되어 로빈슨 크루소만 살아남아 무인도에 표착된다. 난파된 배에서 챙겨온 물건들로 살림을 꾸리고 오두막을 지은 로빈슨 크루소는 사냥으로 먹을 것을 얻고 염소를 기르고 곡식도 재배하며 차츰 무인도 생활에 적응해나간다. 그렇게 섬에 온 지 15년째 되는 어느 날, 야만인에게 잡아먹힐 뻔한 포로 한 명을 구해주고 ‘프라이데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준다. 프라이데이와 문명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섬에 낚선 영국 배 한 척이 도착하고 배에서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이 선장 일행을 끌고 해안에 내린다. 이를 지켜본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는 선장 일행을 구해주고 함께 선상 반란을 진압한다. 이를 통해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 배를 타고 28년 만에 무인도를 떠나, 3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질병으로 인한 격리와 거리두기 상황을 겪으며 일과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 있다. 안정된 일상을 박차고 스스로를 고난과 위기의 삶 속에 던진 인물을 그린, 영국 작가 대니엘 디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이다. 300년 전 소설(1719년 발간)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조직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의 태도 등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레인메이커

-대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고립과 격리에서 탈출한 도전과 모험의 상징 캐릭터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안전하고 편안한 중류층의 생활을 거부하고 바다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야말로 “덤벼라, 세상아!”를 외치는 거침 없는 도전이었다. 세상을 먼저 겪은 부모님의 충고도 모험정신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로빈슨 크루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집을 떠나고 나서야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파란만장한 인생 항로에 들어선 다음이었다. 소설에는 로빈슨 크루소가 ‘눈앞에 파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내달리게 만드는 것’ 같은 자신의 운명에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묘사되었지만, 이는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맞선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로빈슨 크루소는 고향을 떠난 지 8년 만에 삶의 파란과 광란의 바다를 표류해 무인도에 다다르고 만다. 고립된 섬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 자신의 표류하는 심리를 이렇게 기록한다.

나쁜 점 ☹️	좋은 점 😊
나는 구조될 가망이 없는 외딴 무인도에 버려졌다.	→ 하지만 동료들이 모두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 하지만 나는 혼자 떨어진 덕분에 죽지 않았다.
나는 인류와 정연되고 사회로부터 추방된 외톨이다.	→ 하지만 나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이 불모의 땅에 있으면서도 굶어 죽지 않았다.
나는 몸에 결칠 옷도 없다.	→ 하지만 나는 다행히 더운 지역에 있으니까 옷이 필요 없다.



극한의 상황에 고립되고 격리되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겪어본 지금의 독자들 또한 공감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무심코 봐 왔던 대지와 바다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인간의 내면과 존재에 대한 의문까지 품는, 반복되는 심리 변화 속에서도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또 하나의 세상이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나간다. 요새 같은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만들고 별장도 짓는다.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수렵, 어로, 채취 같은 선사시대 생활방식에 도전한다.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만들어낸

21세기형 레인메이커

작품 『로빈슨 크루소』는 소설이기에 앞서 ‘무인도 생존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적이고 세밀한 묘사가 특징이다. 요즘처럼 자발적 격리나 극한의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다가온다.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고 했던가, 자신이 타고 온 난파선에서 기본적인 물자를 가져오지만 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직접 만들고 고안해낸다. 부족한 식량과 사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염소를 가축으로 기르고, 벼와 보리를 경작했으며 발로 슛돌을 돌릴 수 있도록 끈 달린 바퀴를 고안해 내기도 한다. 나무껍질로 바구니를 만드는 공예가, 질그릇을 굽는 옹기장이와 옷과 모자를 만드는 재봉사이자 쪽배를 만드는 목수 일까지 시간이 갈수록 로빈슨 크루소는 자급자족하는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내지 않았다. 그에게 유일한 욕심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라면 바로 무인도 탈출 계획. ‘보트는 포기해도 대륙으로 건너가고 싶다는 욕망은 포기할 수 없었다. 방법이 없어 보일수록 그 욕망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해질 뿐이었다.’ 무인도에서의 생존과 탈출에 대한 열망은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36년 만에 실현 가능한 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식인종들에게 포로로 잡힌 프라이데이를 문명의 세계로 이끌었으며 어려움에 처한 에스파냐인들을 구하고 선상 반란을 진압해 영국인 선장과 선원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개척해나가는 도전정신을, 그리고 모험심을 상징하는 아동문학으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사실 작가 대니얼 디포가 어른들을 위해 쓴 소설이다. 실제로 5년 가까이 무인도 생활을 하다가 구조된 스코틀랜드의 선원 이야기를 듣고 자료조사를 한 후 상상력을 동원해 쓴 작품이라고 한다. 내용을 읽다 보면 요즘 시각으로는 다소 불편하고 뻘한 결말이지만 매 순간 어려움을 겪고 난 후의 성찰과 반성, 고립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준비하는 삶,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자세는 곱씹을 만하다. 18세기 로빈슨 크루소가 21세기에 왔다면 어땠을까, 개인적 삶을 넘어 단합과 협업이 강조되는 조직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자 리더인 레인메이커가 되지 않았을까. 70



HWASEUNG NEWS

화승케미칼,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협의체 출범 및 기술포럼 참석

- 탄소중립 및 화학산업 대전환 위한 19개 민간기업 MOU 맺어



지난 5월 31일 화승케미칼은 한국화학연구원(KRICT) 대전 본원 디딤돌플라자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협의체' 출범식 및 '제3회 KRICT 탄소중립 R&D 포럼(탄소중립 화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참석했다. 화승케미칼을 비롯해 19개 민간기업 연구소장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테석 차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이 참석해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협의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이 주최하는 '2050년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과제'에 대한 포럼도 진행되었다.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협의체 출범을 통해 이미혜 연구원장은 "연구주체 간의 밀접한 업무협력을 이뤄 화학산업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으며, 오테석 차관 또한 "수요자 지향의 산업기술 R&D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협의체가 된 화승케미칼은 지난 1월 한국화학연구원과 '점·접착제 소재 데이터 표준화 및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협의체 MOU(업무협약) 내용

- ① (협력기술분야) 석유화학 친환경 공정 전환,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폐플라스틱 리파이너리, 바이오 리파이너리, 부생가스 활용, 화학산업 디지털 전환, 기타 탄소중립 화학기술 소재·공정 기술
- ②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 ③ 정부 소통, 정책 제언을 위한 참여, 협력 및 지원
- ④ 국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참여, 협력 및 지원

화승네트웍스, 경영설명회 개최

-장천빌딩 2층 미디어홀에서 타운홀 미팅 가져



지난 6월 3일 화승네트웍스는 장천빌딩 2층 미디어홀에서 전사 차원의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팀이나 부서별 소통을 넘어 회사 현안에 대한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리로 네트워크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미팅 관련 사안으로는 ①법인별 손익 현황(상반기 예상, 연간 예상 내외부 구분) 및 채권, 재고 문제 ②주요 이슈(그룹 70주년과 연계한 화승네트웍스의 비전과 핵심가치 수립 계획,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의 지속 가능 전략 및 집중근로시간제 검토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날 '경영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참석한 화승네트웍스 박동호 대표이사는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같이 알고 함께 해야 문제든 목표든 빨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며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다소 무거울 수밖에 없는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티타임을 겸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화승, 부산박물관 특별기획전과 함께하다

- 2022년 특별기획전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참여



부산박물관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불교미술의 역사성과 그 안에 함축된 상징성을 조명하고,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운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2022년 특별기획전(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총 4부(1부.불상, 부처님의 참모습/2부.불복장, 염원의 시간/3부.불화와 사경, 진리의 세계/4부.부산 근대의 불모, 완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가 주목되는 점은 14점의 사도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보 3점, 보물 12점 등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까지 많은 지정문화재가 출품돼 그간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2020년 10월 국보 지정 이후 해인사 밖으로 첫 나들이하는 '합천 해인사 건칠회랑대사좌상'을 비롯해 화승 현승훈 회장의 소장 작품인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 존자)'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전시는 오는 7월 10일까지 개최된다. ㉞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 존자), The 7th Arhat Kalika, 1236년

석가모니 십육대제자 중 7번째인 가리가 존자를 표현한 고려 불화. 의자에 앉아 고요하게 사색하는 이국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담담한 필치의 수묵담채로 담아내었으며 바위와 수목을 배경으로 하는 고려 오백나한도와 구분되는 도상적 특징이 있다.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한신앙의 발현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CAR LUMI®
www.carlumi.co.kr

PREMIUM CAR CARE SERIES
"CARLUMI BEYOND SHINE"

화승케미칼은 1995년부터 국내외 우수 자동차 브랜드의 파트너로
제품을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카루미는 화승케미칼이 선보이는
Premium Car Care Series로
자동차소재 분야의 기술과 품질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Beyond Shine!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RAINMAKER

자신과 타인의 삶을 위해,
기업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단비를 기원하고, 스스로 단비가 된다면
당신은 화승의 진정한 레인메이커다.



화승그룹